

응급의료체계 구축 '온 힘'

전북도, 고속도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헬기 이·착륙장 인계점으로 12개소 신규 지정

전북도가 고속도로 내 중증응급환자 살리기에 본격 나섰다. 전북도는 7일 도청 접견실에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와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과 이호경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고속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인명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속도로 내 12개소의 헬기 이·착륙장을 응급의료전용헬기 인계점으로 신규 지정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발생 위험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이송체계가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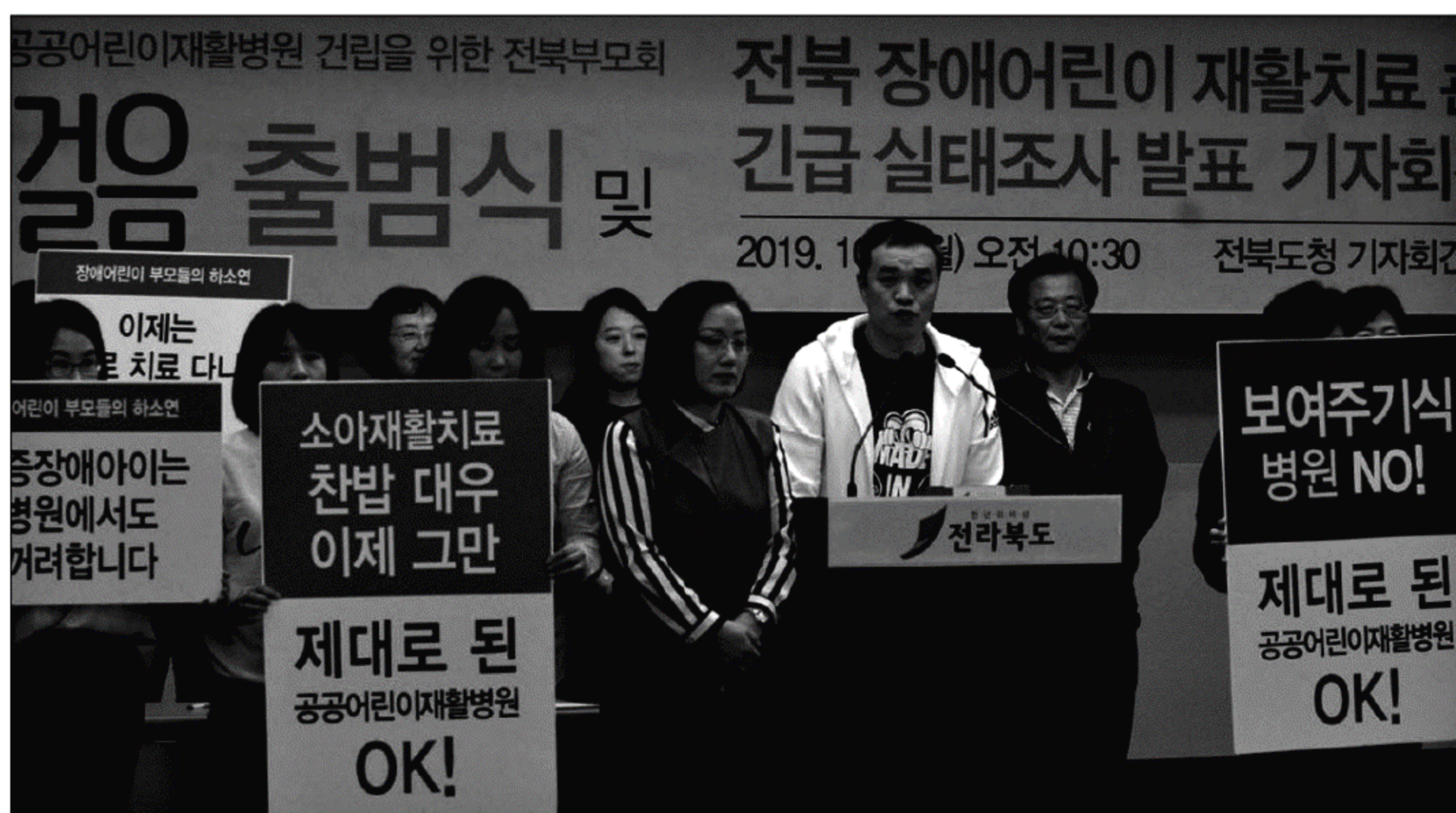
특히, 전북도의 닥터헬기 인계점이 기존 98개소에서 12개소를 추가한 110개소로 확대되어 응급환자 이송체

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닥터헬기의 활용능력이 확대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체계가 구축되어,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전라북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6월 운항을 개시한 전북도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5분 이내에 전문의료진이 탑승 후 출동,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해 현장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으로 최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학부모회 '한걸음' 출범식. 제대로 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한걸음 출범식 및 장애어린이 재활 치료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7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걸음 부모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중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생긴다

전북도, 교육·상담·재취업·창업 등 맞춤형 일자리 공간 조성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특교세 6억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의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선정된 8곳 중 전북도와 원주군 2곳이 선정되어 특교세 6억원

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중년 40~60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공모 선정은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재취업 또는 경력 활용, 창업 등을 원하는 도내 신중년층이 연 2천명씩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기관은 부족한 현실을 극

복하기 위해 전북도가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도는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를 전북도청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며, 원주군은 봉동읍 로컬 잡 센터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는 교육, 상담,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신중년의 사회공헌, 재취업, 전직, 창업 등 방면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임신부까지 확대

전북도는 오는 15일부터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임신부가 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무료접종 대상인 어린이의 경우 2회 접종 대상은 9월 17일부터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되었고 이어서 1회 접종 대상 어린이, 어르신과 임신부의 경우 10월 15일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부터는 임신부까지 확대되어 인플루엔자에 걸릴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임신부의 건강 보호 및 태아 건

강 유지,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기간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필요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 및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평균 6개월 정도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 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

도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춰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을 받으시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 확대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은 임신부가 인플루엔자 감염 시 나타나기 쉬운 합병증 등의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해당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미만 영아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예방접종을 통해 개인의 건강보호는 물론, 인플루엔자 유행을 하라 및 질병부담 감소가 기대됨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콜센터(☎1339, ☎129)로 문의할 수 있으며,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https://nip.cdc.go.kr>), 스마트폰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회의 가져

전북도는 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공공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설계·시공 단계에서부터 사업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전라북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관련 부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전국적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인건

관리에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전라북도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부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 3개 분야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대책, 건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추

락사고 예방을 위해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확대하고 작업자가 추락 위험 지역에 접근하거나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단계별로 도입하고, 민간도 원칙적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 안전관리 강화 및 문화정착에서는 건설사업관리 계획,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건설사고의 신고 의무화를 통해 공사 관련자의 책임의식 향상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안전관련 법령, 작업장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진성 기자

천혜의 자연경관에서 무료로 즐겨요

전북도, 이달까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전북도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섬진강 일원에서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누구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수상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체험교실은 수상레저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3만4000여명이

체험에 참여했다. 군산(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5종 체험(카약, 호비트, 레프팅, 모터보트, 제트스키)과 이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순창(섬진강수상레저연맹)에서는 목재카누 체험을 진행 중이다. 부안(전북요트협회)의 경우 2종 체험(크루즈요트, 모터보트)을 완료(4~7월)했다.

올해 마지막 기회인 10월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해양소년단전북연맹(063-466-0953), 섬진강수상레저연맹(063-652-8157)에 신청하면 된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내년 고군산군도 일원에서 개최하는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2020년 8월 중)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및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반기문,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서 특별강연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 10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무형유산'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연다.

7일 국립무형유산원에 따르면 올해 3회를 맞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주최하고 유네스코이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가 주관하

는 국제회의이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된다. 포럼에는 세계 20여 개국 40여명의 무형유산, 문화 정책 등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이 중 반 전 총장은 10일 오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생활, 그리고 무형유산'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을 갖는다.

뉴스

유엔이 채택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가 무엇인지와 이러한 목표달성에 있어 무형유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등을 설명한다. 또 주제와 연관된 유엔과 유네스코의 협력사례 또는 경험을 소개한다.

또 포럼에서는 특별강연 외에도 마크 제이콥스 벨기에 엔트워프대학교 교수가 살아있는 유산-풍요, 통합, 그리고 역량강화를 주제로, 서연호 무형문화재위원장이 '한국의 무형문화유산과 시민생활'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갖는다.

뉴스

꿈을 키워주는 회원 모집(무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 국제여가문화협회(봉숭아학당) 전주학당
- 도내 각 평생교육원 강사
-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 사무처장
-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 이사
- 도내 각 기관, 단체, 복지관 특강
- 웃음치료사, 노래강사, 스피치지도사, 치매예방지도사, 난타지도사 등

강의분야: 웃음치료, 행복노래, 치매예방, 민요율동, 생활체조, 난타, 강사양성

※ 참고
 ① 각 분야 자격증 희망자 취득가능 상담 후 교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② 남녀, 노소 누구나 희망분야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③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하세요.
 ④ 강사양성으로 제2의 직업의 길이 있습니다.
 ⑤ 꿈을 키워주는 학습의 길이 있습니다.

국제여가협회, 전주 봉숭아 학당 힐링 웃음교실
 전주시 완산구 서원산동 1가 201, (3층)
 (바울센터 옆 덕시양복점 건물)
 (H·P: 010-2078-4810)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